

<사도> 바울 II

* 10/21(수) 고후 ② 8-13장

편지 머리말

1:1-11 인사말, 위로/건지심/살리심

본론 ① 틀어진 관계 회복하기

1:12-2:13 오해와 갈등들

2:14-5장 나는 진정한 <사도>다

6-7장 관계 회복 요청

본론 ② 예루살렘 교회 돋기

▶ 8-9장 예루살렘 교회 돋기 모금

고린도 교인들의 순종 독려

본론 ③ 누가 참인가?

▶ 10장-13:10 사도권 변호
경고들, 세 번째 방문 약속

편지 마무리

▶ 13:11-13 인사와 축복

Before 출치며 읽기

복음을 선교를 위해
바울이 기꺼이 감수했던
점들을 무엇입니까?
#권리 #관계 #고난
#환난 #자존심 #감정

After 목상하기

스스로를 가리는 자.
스스로를 높이는 자.

그렇다면 바울은 정말 능력 없는 사람이었을까요?

그는 출신이나 학벌, 지식과 실력이 출중한 사람이었습니다.

그의 영적 체험은 혹 자만할까 가시를 주셨다고 할 정도였습니다.

(6:2-3, 11:6, 22, 12:7, 11, 빌3:4-8)

그러나 바울은 복음을 <드러내고자> 스스로를 <가렸습니다>.

대상과 상황에 자신을 맞추었습니다(고전9:22, 고후10:23-24).

고난과 환난도 마다치 않았습니다(6:4-5).

투옥과 매 맞음, 죽음의 위협과 배고픔, 추위와 헐벗음(11:23-30).

사도로서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포기했습니다(11:7-9).

사람들을 복음으로 돌이키는 일이라면 자존심도 기꺼이 내려놓았습니다.

그러나 거짓사도들은 달랐습니다.

그들은 스스로 자랑하고 칭찬했습니다(5:12, 10:12).

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잠시 떠나 있는 중에도 서신을 통해

여전히 사도적 권위를 유지하고 있는 바울의 선교 영역이었습니다.

그들은 바울이 없는 틈을 타 남의 수고로 터 닦은 곳에 머물며,

자기 자랑으로 삼고, 열매를 거두려는 자들이었습니다(10:15-16).

고린도 교인들은 참 사도요 아비 된 바울은 멸시하고(고전4:15),

거짓 사도요, 다른 복음 전하는 이들의 자랑은 받아들였습니다.

복음을 위해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스스로 낮춘 바울은 얕보고,

종에게 하듯 군림하는 자들과 그들의 행태들은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.

(1:24, 10:12, 11:4, 7-9, 19-20)

스스로를 가린 자,

스스로를 높인 자.

“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

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(10:18).”

통독의 맥 잡기

8-9장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모금

8:1-24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모금 호소

믿음/말/지식/모든 간절함/우리를 사랑하는 일에 풍성함 같이 이 일도 풍성히 하라.

9:1-15 아가야 지역의 교회들을 향한 모금 호소

9:1-5 모금을 위한 준비

9:6-15 현금하는 자의 자세와 현금의 효용성

마음에 정한대로, 억지로가 아니라 즐겨내라.

10장-13:10 <거짓 사도>들에 관하여

10:1-18 공격에 대한 바울의 자기변호

대면하면 약하고 멀리서만, 편지로만 강하다?

자랑거리가 없다? 자랑하지 않는 것이다!

11:1-12:13 바울의 자랑거리 : 오직 복음을 위하여!

스스로 낮추고, 사도적 권리도 포기함

출신, 수고와 고난, 신비적 체험, 육체적 약점

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거짓 사도들 보다 부족하진 않다.

12:14-13:10 세 번째 고린도 방문 계획

방문을 앞둔 바울의 걱정

방문하여 할 일에 관하여

13:11-13 편지 마무리

인사와 축복